



3대리구 성미카엘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Bernard -

11월 2022 -

세계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2. 11. 13. (다해) 제2348호

제1독서 말라 3,19-20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제2독서** 2테살 3,7-1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5-19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9)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흰색 돌로 지어져 화려하게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마냥 감탄할 때, 예수님은 성전이 돌무더기조차 남기지 못하고 허물어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쟁과 천재지변, 기근과 전염병,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시대(기원후 41~68년)의 지진과 기근, 아그리파스 1세 임금과 총독들 치하에서 사도들이 겪은 박해, 제1차 유다 독립전쟁(기원후 66~70년) 등이 실제로 일어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건물과 성벽 모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기원후 70년). 교회는 예수님의 ‘종말 담화’(루카 21,5-36)가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알기에, 전례 주년의 막바지마다 그것을 늘 엄중하게 되새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전조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온난화와 천재지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유례없는 홍수와 산불, 지독한 기근과 전염병, 국가 간 군사 충돌과 핵 전쟁의 위협 등을 수시로 접하면서, 사람들은 공멸(共滅)의 위기에 무관심한 이들과 종말을 운운하며 염려하는 이들로 나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종말의 전조들을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하신 말씀은 종말의 전조와 실제로 종말이 이루어지는 때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 인물들처럼, 종말이 ‘언제’, ‘어떤 표징과 함께’ 올지 알아내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독서에서 말라키 예언자는 종말이 악인들에게는 불붙는 징벌의 날이 되겠지만, 하느님을 경외하며 충실히 산 이들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는 날”, 즉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두신 그때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그때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인가?’이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대가 그 무엇보다 ‘증언의 때’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과 윤리의 위기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논리에 맞서다 고초를 겪기도 하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기쁨과 희망을 간직한 삶을 충실히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표징’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당부일 터입니다.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처럼 묵묵히 “수고와 고생”을 감내하며 주위에 “모범”을 보이는 ‘나의 일상’이, 성령께 의탁하며 주위에 무너진 하느님의 정의와 질서를 다시 세우는 ‘나의 오늘’이, 바로 ‘나의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필문**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루카 1,39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것이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주제였습니다. 이 대회 이후에,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긴급한 요청으로 마음이 불타올라 새로운 목적지인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은 바오로 사도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사도 26,16 참조). 리스본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나아가는 동안, 주님 탄생 예고를 듣고서 곧바로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난’(루카 1,39 참조) 나자렛의 동정녀께서 우리 곁에 계시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공통점은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가 내년 8월에 리스본에서 하게 될 경험이, 젊은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또한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 주리라고 저는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중략>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세계 젊은이의 날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끝나고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함께 리스본에서 민족들과 세대들이 형제로서 일싸안는 기쁨, 화해와 평화로 일싸안는 기쁨, 새로운 선교적 형제애로 일싸안는 기쁨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거짓된 경계를 버리고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하는 여정의 기쁨을 불붙여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서둘러 일어납시다!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마리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갑시다! 여러분 삶의 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이 내딛는 걸음걸음을 강복합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여인의 이름 중에 그토록 광활하고 복잡한 해석과 의미를 한꺼번에 맞닥뜨린 이름이 또 있을까. 너무나 짧은 성경 구절 몇 마디로 인류 역사의 고단한 삶이, 그 술한 간절함이 그 여인의 어깨 위에, 두 손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때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처럼, 때론 우리 '엄마'처럼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하는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품고 있는 신앙인들의 고백은 사실, 진심 어리다 못해 뻗속까지 차오른 목마름의 외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애길 들어주시길... 성모님께 향한 술한 외침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우리 '엄마'처럼 하느님이 내 편이길 바라는 간절함이다. 그러나 이 간절함은 사실 간절한 체념이다.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을 때, 성모님은 마지막 간절함을 끝내 들어주는 여인으로 남는다.

사도 바오로는 성모님에 대해 박하다. 겨우 '한 여인'으로 소개할 뿐이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머무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갈라 4,4) 성모님을 가리키는 '여인'은 '율법 아래'에 놓이는 예수님의 육화를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다. 성모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사도 바오로의 해석 사이엔 크나큰 간극이 있다. 그럼에도 성모님이 '한 여인'인 건 귀하다. 예수님을 받아내는 '한 여인', 초월적인 신이 율법 아래 머무르겠다는 그 '바닥'에 성모님은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신다. 초월이 한계 안에 내려왔고, 하늘이 이 땅 안에 제 거처를 만들기 시작했다. 성모님은 그런 가당찮은 '바닥'의 상징이다.

그렇다고 성모님의 겸손을 무조건적인 자기 낮춤으로 이해하는 건 적절치 않다. 너보다 낮은 자리에 머물며

네가 시키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겠다는 태도를 겸손이라 한다면 성모님은 그런 겸손과는 거리가 있다.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셨다.'(루카 1,29) '곰곰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디아로기조마이(διαλογίζομαι)'로, 어떤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리하여 인식의 내적 투쟁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성모님은 자기 한몸 건사하는 고민을 한 게 아니다. 주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순한 여종이 성모님이 아니다. 우리는 애초에 성모님의 고뇌와 내적 투쟁에 눈감은 게 아닐까. 무조건적인 순종의 관점에 성모님을 가둬놓고 바라본 게 아닐까. 성모님은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전투적이었고, 비판적 고민 끝에 온 세상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뤄내셨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성모님을 '여인'이라는 단어로 소개한다. 카나 혼인 잔치에서 성모님을 '여인'이라 부르는 예수의 '차가움(?)'에 신앙인은 당혹스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머니가 된다.(요한 19,27) 사도 바오로가 말한 '여인'은 요한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 거듭난다. 다만 그러한 새로운 탄생은 십자가 아래였다. 뻗속 깊이 차오르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제 아들의 죽음을 끝끝내 견뎌내시는 성모님의 간절한 체념 아래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엄마, 엄마, 우리 엄마라고 성모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고통의 한복판에서 구원은 완성되고 성모님은 우리 '엄마'이고야 만다. 고통에 섬세하고, 고통에 함께하는 곳에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엄마'로서 구원을 받아내고야 만다. 이태원의 그 좁디 좁은 골목 안에서도 성모님은 그들의 '엄마'여야만 하고 또한 우리의 '엄마'여야만 한다. **필문**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프랑스 영사가 새로 부임하다

1월 3일 금요일

무세 신부가 휴가를 보내러 미알롱 신부와 함께 떠났다. 건축 감독일 때문에 아마 다른 시기에는 휴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1월 5일 일요일

금일 자 <교구통신문>을 통해 피정이 2주일 연기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선교사들에게 기도 가운데 교구의 은인들을 꾸준히 기억하도록 요청했다.

1월 6일 월요일

성탄절에 출발했던 서울의 보니파시오 원장이 어제 베를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르쿠츠크(Irkutsk)를 지났을 때 영하 42도였다.

1월 9일 목요일

서울 주재 우리 계랭(Guerin, 業國麟) 프랑스 영사가 어제 떠났는데, 우리에게 큰 손실은 아니다.

1월 15일 수요일

강경리(江景里)에서 온 클렙프테르 신부가 오전 3시에 대구에 도착했다.

1월 16일 목요일

신임 프랑스 영사가 자신의 충실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달 5일에 함께 서울에 도착한 앙드레(André)씨이다.

1월 17일 금요일

파리에서 라틴어의 로마식 발음이 채택되었고, 서울과 만주에서도 그렇게 되었다.

1월 18일 토요일

클렙프테르 신부가 성사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야 했다. 즉 그의 신자들이 그의 방문으로 인해 물질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거의 어디서나 불평하고 있다. 부산의 신자들은 그를 받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동맹파업적인 원칙이 용납될 수 없으므로 그에게 부산으로 가라고 명했다. 우리가 일본인을 위한 선교사를 얻으려는 교섭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에 못지않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상 | 현역 복무 중인 신자 자녀 사병
※ 장교, 부사관, 훈련병, 교육생 제외
신청마감 | 2022년 11월 18일(금)까지 (기일엄수)
접수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군종후원회 Tel. 053-256-0815
Fax. 053-255-9470



청년 김대건,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영화 「탄생」 11.30.(수) 개봉

15세에 세례를 받고 신부가 된 후 25세에 순교할 때까지
조선 근대의 길을 열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종횡무진 누빈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곧 개봉됩니다.

* 가까운 극장의 상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피아니스트 백혜선
시와 그림이 있는 음악회
11.19.(토) PM 7시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예매 | 범어대성당 홈페이지, 티켓링크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쓰지 않는 새 물건과 중고물품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4일(월) 10:00 황성성당	수험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미사	11월 15일(화) 11:00 성모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4일(월) 11:0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9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4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19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시간: 수시문의 / 장소: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마리아사제운동 전국 대피정

일시: 11.19(토) 9:30~17:00
강사: 루카 페스카토리(세계대표신부)
미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젊은이 대림 피정

주제: 당신을 위한 마음공간
일시: 11.26 14시~11.27 14시(1박 2일)
장소: 프란치스코전교보사수녀회 원주본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12.3~5 / 12.9~11 / 12.16~18
연말연시피정: 12.30~1.2(눈꽃산행)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토요성령기도회 특강

일시: 11.19(토) 14:00~17:30
특강: 김선태 야고보 신부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현대백화점 앞 / 설화명곡역 출발
문의: (054)954-3091

하로사수녀의 민화 전시회

일시: 11.15(화) 14:00 ~ 11.27(일)
장소: 예담 갤러리(남산동 백합식품 2층)
주제: 꽃밭에서
문의: (010)3801-3416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 연구회
(010)2509-9748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대구은행 069-10-003259
기부금영수증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 안과
D. OMBKIM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ye.co.kr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가 3층 307호
김경임 (아네스)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두(아오스당),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승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렐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이랑로 46 (신암동 214-4) 2층 Tel 053-954-7582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59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053) 320-2000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용로 142 (이마트 강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권영조(마르코) 신부
1965년 11월 16일
- 남대영(루도비코) 신부
1972년 11월 17일
- 류홍모(안드레아) 신부
1948년 11월 18일

교구 | 대리구 알림

11월 예비신학교 모임 안내

일시: 11.20(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중1~고3,대학일반)
 포항 죽도성당(4대리구 중등부)
 구미 신평 5대리구청(5대리구 중등부)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218차 마르코

일자: 11.26~27 / 11.30 / 12.3~4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신청비: 15만원
 대상: 마르코 팀공부를 완료한 청년
 신청: www.jesusclub.or.kr 청년사목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추환동(도미니꼬), 전창욱
 문의: 253-9550 / (010)9382-9550

삼덕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 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422-6691

고령성당 사무장 채용

조건: PC 가능자, 신앙생활 하고 있으신 분
 서류: 이력서, 교적 증명서
 문의: (054)956-990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2023학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대상: 수도자·평신도(만18세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3.2.10(금)까지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 가능)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29 베트남 5일 125만원
 12.26 베트남 5일 125만원
 1.21 설특선 이탈리아 9일 430만원
 1.25 일본 나가사키 4일 12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바로로팔 영성프로그램

어른도 행복한 그림책:
 11.17~(매주 목 4주 10:00~12:00)
 부모를 위한 마음 돌봄:
 12.3~(매주 토 6주 14:00~16:00)
 신청 및 문의: (010)6681-5185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11.14(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10분)
 주제: 임종예식, 상장례(교재있음)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4차 ME주말: 11.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2023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순번추첨결과: 11.21(월) 대구주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발송
- 주보광고접수: 11.24(목)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회의실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턴 익일까지)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늘 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작장 ☎ (053-959-7175 / 010-9597-7175)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 010-2008-2329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최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오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입(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대거리 ☎ 053)628-4111

39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 ↔ 광평원 사이 지하도 입구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